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4.13 총선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2016. 4.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17기

(담당 : 이옥남·김도연)



I

‘4.13총선’ 대학생 인식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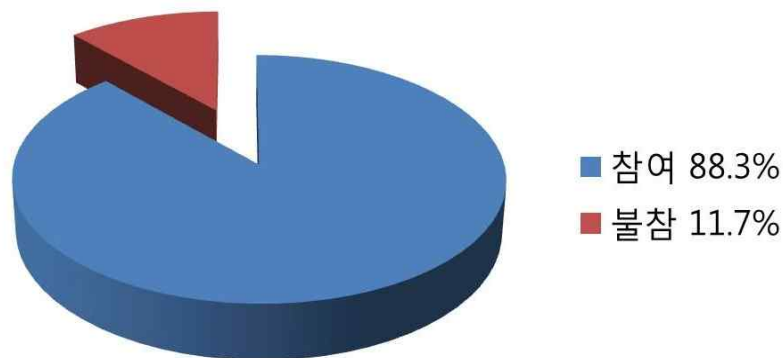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은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4월 13일에 열리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4.13총선에 대한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 여부와 투표 행태, 대학생이 바라는 청년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소속 대학생들이 4월 9일 ‘구글온라인서베이’를 통해 하루 간 진행되었다.

II

‘4.13총선’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

1. 투표참여 행태

1) 투표참여 여부와 불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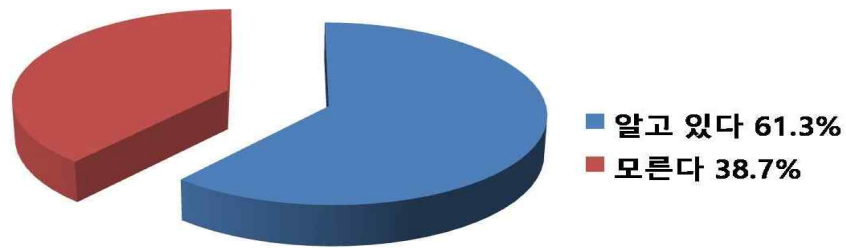
[그림1] 4.13 총선 참여 여부

조사대상 대학생 300명 중 88.3%는 4.13총선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그림 1】참조). 투표에 불참하겠다고 답한 대학생은 11.7%로 나타났는데, 불참이유를 보면 첫 번째 ‘선거(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후보자 중 투표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33.3%, ‘투표하러 가는 게 귀찮아서’가 11.9%로 뒤를 이었다.(【표 1】참조)

【표 1】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

연번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	비율
1	선거(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54.8%
2	후보자 중 투표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33.3%
3	투표하러 가는 게 귀찮아서	11.9%

2) 선거 지역의 후보자와 후보자 공약 인식



[그림2] 후보자 및 후보자 공약 인식

4.13총선에서 각 지역구 후보자 혹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61.3%가 알고 있는 나타났다. 38.7%는 아직까지 후보자와 공약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3) 후보 선택 기준

① 후보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4.13총선에서 대학생들이 후보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한 질의에는 29.3%가 ‘투명한 정치문화를 위한 개혁성향의 후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다음으로 ‘전문성 및 정책능력을 갖춘 후보’가 26%, ‘지역 챙기기뿐만 아니라 국익에 기여할 후보’도 21%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는 ‘지역구에 내건 공약을 잘 지킬 후보’나 ‘정당을 보고 뽑는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표 2】 후보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순번	후보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건	비율(%)
1	투명한 정치문화 위한 개혁성향 후보	88	29.3
2	전문성 및 정책능력 갖춘 후보	78	26
3	지역 챙기기뿐만 아니라 국익에 기여할 후보	63	21
4	경제 살리기 등 미래지향적 공약	33	11
5	병역, 납세 등 국민의 의무 수행 여부	27	9
6	기타	11	3.7
합계		300	100

② 선거에서 뽑지 말아야 할 후보를 고르는 기준

반면 ‘뽑지 말아야 할 후보를 고르는 기준’을 살펴보면 ‘부패, 비리, 거짓말 경력자’가 52.7%로 과반 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후보자의 윤리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포퓰리즘 공약, 갑작쇼 남발한 후보자’가 21%, ‘사회분열, 지역감정 조장 후보자’가 10.7%로 나타났다(【표 3】참조). 기타 의견으로는 ‘당선된 후 지역 공약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후보자’나 ‘병역, 납세 등 국민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의원’도 뽑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막말 등 정치적 품위를 훼손시키는 후보자’도 뽑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표 3】 뽑지 말아야 할 후보를 고르는 기준

순번	뽑지 말아야 할 후보를 고르는 기준	건	비율(%)
1	부패, 비리, 거짓말 경력자	158	52.7
2	포퓰리즘 공약, 갑작쇼 남발한 후보자	63	21
3	사회분열, 지역감정 조장 후보자	32	10.7
4	세금 체납 등 의무 불성실 이행자	19	6.3
5	막말 등 정치 품위 훼손시킨 후보자	8	2.7
6	기타	20	6.7
합계		300	100

2. 대학생이 바라는 20대 국회

① 20대 국회에서 꼭 사라졌으면 하는 국회의 모습

역대 최악이라고 꼽히는 19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20대 국회에서 꼭 사라졌으면 하는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장외투쟁 등에만 치중하는 일하지 않는 국회’가 꼭 사라져야 할 모습이라는 의견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다음으로는 ‘각종 특권 등 권위의식’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26%, ‘막말, 갑질 등 비윤리적 모습’이 22.3%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의원’이 없는 국회였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다.

【표 4】 20대 국회에서 꼭 사라졌으면 하는 국회의 모습

순번	20대 국회에서 꼭 사라졌으면 하는 국회의 모습	건	비율(%)
1	장외투쟁 등에만 치중하는 ‘일하지 않는’ 국회	108	36
2	각종 특권 등 권위의식	78	26
3	막말, 갑질 등 비윤리적 모습	67	22.3
4	상임위 나눠먹기 등 전문성 부족	31	10.3
5	기타	15	5.3
합계		300	100

② 20대 국회에 바라는 국회의 모습

20대 국회에 바라는 국회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는 21.7%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고 답변했다(【표 5】 참조). 다음으로는 ‘부정부패, 비리 없는 청렴하고 투명한 국회’를 바란다는 의견이 19.3%, ‘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잘하고 파행하지 않는 성실한 국회’를 바란다는 의견도 11.3%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정책과 공약을 지키는 신뢰성, 토론하며 소통과 화합을 하는 국회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사람을 소중히 하는 정치를 원한다’, ‘국회 의원들이 조금 더 치열하게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주장하고 토론해줬으면 좋겠다’,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 비전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선거 중에만 지역민에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의 국회가 부끄럽기 때문에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5】 20대 국회에 바라는 국회의 모습

순번	20대 국회에 바라는 국회의 모습	건	비율(%)
1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국회	65	21.7
2	부정부패, 비리 없는 청렴하고 투명한 국회	58	19.3
3	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 잘하고 파행하지 않는 성실한 국회	34	11.3
4	정책, 공약 등 지키는 신뢰성 있는 국회	30	10
5	토론을 멈추지 않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국회	19	6.3
6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국회	13	4.3
7	계파, 여야 간의 싸움 하지 않는 국회	12	4
7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열린 국회	12	4
9	특권의식, 권위의식 없는 국회	5	1.7
9	이전 국회에서 하지 못 했던 국회개혁 하는 국회	5	1.7
-	기타	47	15.7
합계		300	100

3. 대학생이 바라는 ‘청년’ 을 위한 정책

대학생들이 바라는 ‘청년을 위한 정책’ 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결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이 29%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등록금 인하 정책 등으로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22.3%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 청년들의 주거난 해결’ 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턴 등 일자리 채우가 개선’ 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각각 6%로 뒤를 이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발표한 청년정책도 이와 유사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등록금 인하’ 와 ‘대학생·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 공약은 19대 총선, 18대 대선에도 나왔던 공약들이다. 이 공약들이 결국 4년 동안 대학생·청년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대학생이 바라는 ‘청년’ 을 위한 정책

순번	대학생이 바라는 ‘청년’ 을 위한 정책	건	비율(%)
1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결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87	29
2	등록금 인하 정책 등으로 대학생 부담 완화	67	22.3
3	대학생, 청년들의 주거 난 해결	18	6

순번	대학생이 바라는 ‘청년’을 위한 정책	건	비율(%)
4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턴 등 일자리 채우 개선	18	6
5	대학생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교통-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확대	10	3.3
6	내실 있는 청년 창업 지원 정책 마련	10	3.3
7	계층(금수저, 흙수저와 같은)에 상관없는 균등한 기회 부여	5	1.7
8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4	1.3
9	노동문제 해결	4	1.3
-	기타	77	25.7
합계		300	100

기타 의견에는 ‘다른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청년공약이 아니라 세대별 갈등을 주지 않는 청년 공약이 나오길 바란다’, ‘산학연계가 활성화 되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기를 수 있는 대학정책이 필요하다’, ‘인문학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형평성이 담보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나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원하기도 했다.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의견도 6.7%(20명)이 나 있었다. 이 중에는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도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어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III 결론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4.13총선’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명 중 88.3%가 투표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본인 선거 지역의 후보자와 후보자 공약을 알고 있다는 답변도 61.3%를 차지했다. 후보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투명한 정치문화를 위한 개혁성향 후보’가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성 및 정책능력을 갖춘 후보’와 ‘지역 챙기기뿐만 아니라 국익에 기여할 후보’가 각각 26%, 21%로 나타났다. 뽑지 말아야 할 후보도 ‘부패, 비리, 거짓말 경력자’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포퓰리즘 공약, 감쪽쇼 남발한 후보자’가 21%, ‘사회분열, 지역감정 조장 후보자’가 10.7%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느끼는 과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이었다. 최근에는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12.5%에 달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각 정당의 공약도 이런 통계와 대학생들의 요구를 담고 있지만, 공약 실현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남는다. 20대 국회에서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윤리성, 신뢰성,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성실한’ 국회의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